

# 가야 금속공예품의 특색과 변화양상

이 한 상\*

## 차례

- I. 머리말
- II. 귀금속 장신구의 특색과 변화양상
- III. 장식대도의 특색과 변화양상
- IV. 맺음말

### 【국문초록】

금속공예품을 소재로 가야라는 정치체의 공간적 범위를 찾아낼 수 있는 시기는 서기 5세기 무렵이다. 이 시기가 되면 고구려, 백제, 신라와 구별되는 가야적인 금속공예품이 제작되기 때문이다. 가야적인 특색은 관, 귀걸이 등의 장신구와 환두대도에 잘 드러나 있다. 가야의 관은 풀 혹은 꽃모양의 장식을 갖추고 있어 주변국의 관과는 차이가 있고, 귀걸이는 속이 비어 있는 둥근 구슬과 나무열매모양의 장식을 주요 모티브로 삼고 있어 특색이 있다. 환두대도의 둥근 고리 속을 파이프처럼 비게 만들고 용이나 봉황장식을 별도로 만들어 결합하였다는 점도 가야적인 특색이다.

가야적인 금속공예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백제로부터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백제는 가야의 오랜 우방이었으며 새로운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해주는 원천이었다. 가야 사회에서 금속공예품문화가 개시되는 5세기 전반의 장신구와 환두대도 가운데는 백제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계를 지나 서기 5세기 후반이 되면 가야적인 특색을 보다 현저하게 갖춘 금속공예품이 등장한다. 그러한 변화의 배경은 가야의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가야의 맹주였던 고령의 대가야 왕이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낸 479년 무렵, 대가야의 왕은 연맹에 속해 있던 지배층들

\*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조교수

을 결속하고 또 그들을 매개로 가야 사회를 지배하기 위하여 가야적인 금속공예품을 본격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한 것 같다.

#### 주제어

가야, 금속공예품, 장신구, 귀걸이, 환두대도

## I. 머리말

한때 가야는 '잊혀진 왕국'으로 불렸다. 그것은 가야의 역사를 전하는 사료가 영성하다는 점과 더불어 가야고분의 대부분이 도굴되었을 것이므로 발굴이나 연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큰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최근의 발굴조사 성과는 우리의 생각에 오류가 있었음을 보여주었고 가야사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가능케 해주었다.

특히 고령과 합천, 김해, 함안 등 가야제국의 중심지에 소재한 고분군에서는 여러 기의 왕 또는 수장묘가 발굴되었고 그곳에서 가야인의 삶과 역사를 복원해볼 수 있는 중요 유물이 다량 반출되었다. 그 가운데 금속공예품은 같은 시기의 고구려·신라·백제와 구별되는 가야적인 디자인과 제작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속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미감이 구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가야의 금속공예품<sup>1)</sup>을 소재로 가야문화의 한 단면을 소묘해보고자 한다. 가야의 금속공예품이 지닌 특색을 먼저 추출해본 다음,

1) 금속공예품의 범위는 매우 넓다. 그 가운데는 감상을 목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금속용 기처럼 일상용품도 포함된다. 수량은 적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장승의례용품도 제작된다. 가야의 경우 금속제장신구와 장식대도가 가장 많으며 장식마구, 장식무구, 금속용기도 출토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금속제장신구와 장식대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어 시간이 흐르면서 가야의 금속공예품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보려 한다.

## Ⅱ. 귀금속 장신구의 특색과 변화양상

### 1. 관

5~6세기의 동아시아는 황금의 시대라 부를만하다. 고구려·백제·신라 뿐만 아니라 선비족 왕조, 왜의 지배층 무덤에서는 각종 황금장식이 다량 출토된다. 가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곧 가야적인 특색이 드러났다. 대가야가 국제사회에 모습을 보이는 5세기 후반<sup>2)</sup>을 전후하여 최고급 공예기술이 구사된 각종 황금장식품이 많이 만들어진다.

여러 종류의 귀금속 장신구 가운데 소유자의 위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관은 가야유적에서도 몇 점 출토되었다.<sup>3)</sup> 발굴조사를 통하여 금관이 출토된 적은 없지만 도굴된 것을 수집한 것으로는 고령 출토로 전하는 호암미술관 소장품(〈그림 1〉 좌)과 小倉이 수집하여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기증한 것<sup>4)</sup>이 있다. 이 중 호암미술관 소장품은 일괄유물로 알려진 이식이 고령 지산동45호분 출토품<sup>5)</sup>과 유사도가 높고 유물의 격 또한 가야에서는 최상급이므로 고

2) 加羅王 荷知가 南齊에 遣使하는 479년을 전후한 시기를 말한다.

3) 早乙女雅博, “新羅·伽耶の冠”, 『MUSEUM』 372, 東京國立博物館, 1982.

박보현, “가야관의 속성과 양식”, 『고대연구』 5, 고대연구회, 1997.

함순섭, “신라와 가야의 관에 대한 서설”, 『대가야와 주변제국』, 한국상고사학회 외, 2002.

4) 함순섭, 1997, 『小倉Collection 금제대관의 제작기법과 그 계통』, 『고대연구』 5, 고대연구회.

국립문화재연구소,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재』, 2006.

5) 고령군, 『대가야고분 발굴조사보고서』, 1979.

령 지산동고분군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발굴품 중에서는 고령 지산동32호분 출토 금동관(〈그림 1〉 우)<sup>6)</sup>이 대표적이다. 이 금동관은 草花形의 立飾이 특징이며 신라의 금동관에 비한다면 입식의 형태나 장식이 간략하다. 무덤의 주인공이 착용한 것이 아니며 부장 토기 위에서 출토되었다. 지산동30호분2곽 출토 금동관<sup>7)</sup>은 소형이고 보다 간소한 형식이며 역시 착용품은 아니다. 성주 가암동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가야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로 보면, 가야적인 관은 고령에 집중되어 있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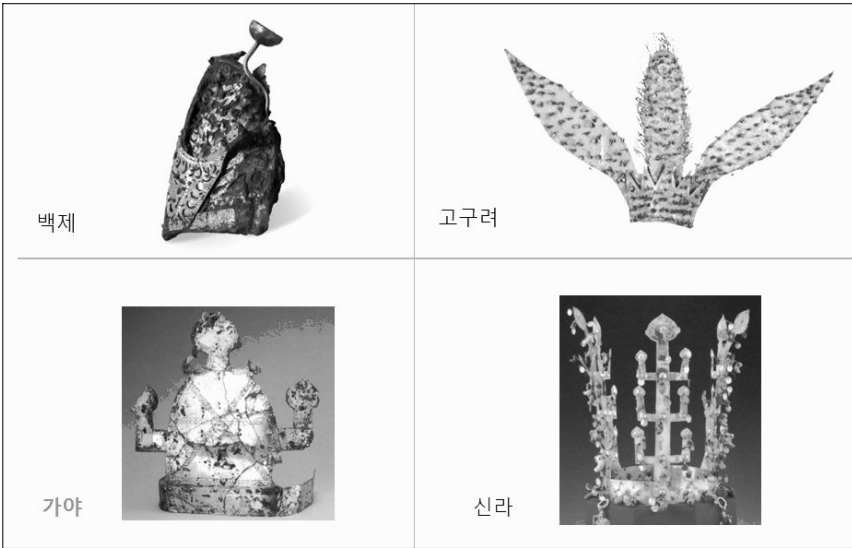
〈그림 1〉 가야의 관(좌: 진 고령, 우: 지산동32호분)

이외에도 함천 옥전23호분에서 금동제 관모가,<sup>9)</sup> 함안 도항리 암각화고분에서 금동제 대륜이 출토된 바 있다.<sup>10)</sup> 옥전 금동관모는 백제로부터 완제품

6) 김종칠,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계명대학교 박물관, 1981.  
 7)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외, 『고령 지산동30호분』, 1998.  
 8) 옥전M6호분에서는 금동관과 은관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금동관은 신라관의 독특한 특징인 出字形 입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신라의 관과는 입식의 형태가 많이 다르고 제작기법도 조악한 편이므로 신라의 영향을 받아 가야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9) 조영제 외, 『함천 옥전고분군VI』, 경상대학교박물관, 1997.  
 10) 창원문화재연구소, 『함안 암각화고분』, 1996.

이 이입된 것으로 보이며<sup>11)</sup> 도항리 출토품은 연화문이 시문되어 있지만 입식이 없어 더 이상의 검토가 어렵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가야의 관은 백제, 고구려, 신라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고구려나 백제의 관은 고깔모양의 몸체에 鳥羽形 또는 초화형의 입식을 부가한 것이 많고 신라의 경우 대륜에 出字形의 입식을 부착한 것이 일반적이다. 관 자체만으로 연대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공반유물을 통해 지산동32호분 관은 5세기, 전 고령 금관은 6세기라는 정도로 편년할 수 있다.



〈그림 2〉 주변국 관과 비교해본 가야 관(백제 : 수촌리4 호분 고구려 : 전 집안 신라 : 금관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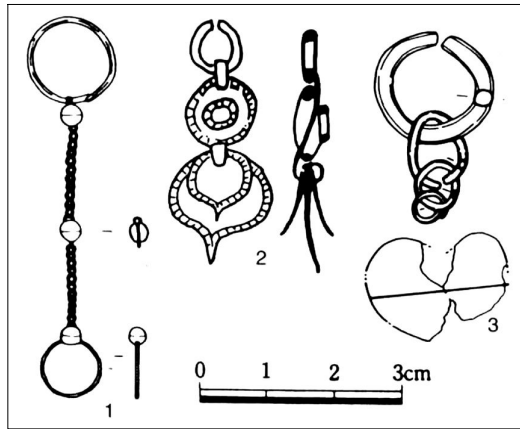
## 2. 이식

가야 이식의 대부분은 대가야 양식의 이식이다.<sup>12)</sup> 그 외에 함안의 도항

11) 이한상,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경문화사, 2009, pp.136~140.

12) 谷畑美帆, “日本及び朝鮮半島出土の垂飾付耳飾について”, 『考古學研究』 40, 考古學研

리(경남고고학연구소 발굴) 11호 석곽묘<sup>13)</sup>(〈그림 3〉좌)나 도항리(창원문화재연구소 발굴) 4-가호묘(〈그림 3〉중)에서 출토된 이식<sup>14)</sup>은 대가야 이식과는 제작기법이 달라<sup>15)</sup> 이를 安羅적인 이식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림 3〉 인라의 이식 좌 :도항리 1호석곽묘, 중 :도항리 4-가호묘, 우 :도항리31호묘

究會, 1993.

三木ますみ, “朝鮮半島出土の垂飾付耳飾”, 『筑波大學先史學・考古學研究』7, 1996.

이경자, “대가야계고분 출토 이식의 부장양상에 대한 일고찰”, 『영남고고학』 24, 영남고고학회, 1999.

이한상, “대가야권 장신구의 편년과 분포”, 『한국고대사연구』 18, 한국고대사연구회, 2000.

高田貴太, 『일본열도 5, 6세기 한반도계 유물로 본 한일교섭』,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이은영, “가야시대 이식 연구—함천 옥전고분 출토 이식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3) 경남고고학연구소 외, 『도항리·말산리유적』, 2000.

14)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함안 도항리고분군Ⅱ』, 1999.

15) 예를 들어 첫째, 〈그림 3〉 좌의 이식은 공구체와 시슬을 이어 만든 長鎖式 이식인데 맨 아래 공구체에 홈을 내어 원형의 수하식을 끼워 넣었다. 이러한 기법은 대가야 이식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그림 3〉 中 이식의 중간식은 중공 편구형의 장식을 세로로 부착한 것인데 이 역시 본 예가 유일한 것이며 대가야 이식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아직 자료는 부족하지만 함안 일원에는 안라적인 이식문화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대가야 이식의 주환은 모두 세환이며 현재까지 태환이식의 출토예가 없다. 이 점은 백제의 이식과 공통하는 점이다. 초현기의 가야 이식이 가운데는 백제적인 요소가 많이 관찰되므로 태환이식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합천 옥전M4호분(〈그림 7〉 좌)이나 M6호분 이식<sup>16)</sup>처럼 6세기 전반의 늦은 단계가 되면 주환의 고리가 조금 굽어지고 태환처럼 속을 비게 만든 것이 등장한다. 이 점은 같은 시기의 신라나 백제 이식과 공통하는 현상이다.

중간식은 대부분 空球體이다. (도 4·5) 半球體 2개를 땀으로 접합하여 구체로 만든 것이다. 옥전20호분 이식<sup>17)</sup>처럼 구체의 중간에 각목대가 장식되지 않은 것은 백제 한성 시기 이식과 형태가 유사하다. 여기서 조금 변형된 것이 옥전M2호분 출토품(〈그림 4〉 좌, 〈그림 6〉 우)<sup>18)</sup>처럼 각목대가 부착된 것이고, 지산동45호분 출토품(〈그림 5〉 좌)<sup>19)</sup>처럼 금 알갱이가 붙거나 영락이 매달린 것이 가장 화려하다. 이외에 옥전23호분 이식(〈그림 6〉 좌)은 원판상의 장식을 중간식으로



〈그림 4〉 가야이식1좌 :옥전 M2호분, 중 지산동44호분, 우 : 옥전28호분)



〈그림 5〉 가야이식2(좌·중 :지산동45호분 우 : 지산동39호분)

16) 조영제 외, 『합천 옥전고분군Ⅳ』, 경상대학교박물관, 1993.  
 17) 조영제 외, 『합천 옥전고분군Ⅶ』, 경상대학교박물관, 1998.  
 18) 조영제 외, 『합천 옥전고분군Ⅲ』, 경상대학교박물관, 1992.  
 19) 고령군, 『대가야고분 발굴조사보고서』, 1979.



〈그림 6〉 5세기 가야이식 세부(좌: 옥전23호분, 우: 옥전M2호분)



〈그림 7〉 6세기 가야이식 세부(좌: 옥전M4호분, 우: 중안동)

사용하였다. 이는 천안 용원리9호 석곽묘,<sup>20)</sup> 서산 부장리 6-6호분 출토품<sup>21)</sup>처럼 백제 한성시기의 이식에 유례가 있는 바,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합천 옥전M11호분 이식<sup>22)</sup> 역시 백제 무령왕비의 이식과 제작기법상의 유사도가 높으므로 백제와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그 외에 합천 옥전M3<sup>23)</sup>·4·6호분 이식은 신라적인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다.

수하식으로는 심엽형 장식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출토 예로 보면 금편을 둥글게 말아서 만든 원추형 장식이나 삼익형 장식, 속빈 금 구슬, 산치자 열매

모양의 장식 등 다양한 형태의 수하식이 공존하였다. 이 가운데 대가야적인 색채가 가장 짙은 것이 원추형이다. 옥전M2호분 예처럼 위가 넓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좁아지며 끝에 각목대를 감아 장식한 것이 있고, 지산동45호분1곽 예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급격히 좁아지며 맨 아래에 금 알갱이

20) 이남석, 『천안 용원리고분군』, 공주대학교 박물관, 2000.

21) 국립공주박물관·충청남도역사문화원, 『4~5세기 백제유물 특별전, 한성에서 웅진으로』, 2006.

22) 조영제 외, 『합천 옥전고분군V』, 경상대학교박물관, 1995.

23) 조영제 외, 『합천 옥전고분군II』, 경상대학교박물관, 1990.



를 붙인 것(〈그림 5〉 좌·중)이 있다. 山梔子 열매 모양의 장식<sup>24)</sup> 또한 대가야적인 수하식이다.<sup>25)</sup>

이식의 각 부품을 연결하는 금구로는 금사를 엮어 만든 사슬이 많이 사용된다. 금 사슬 가운데는 겹사슬도 일부 존재한다. 이처럼 공구체 중간식에 금 사슬을 연결금구로 활용한 이식은 일본 열도에서도 유행하였다. 다만 열도 출토품은 대가야 이식에 비하여 길이가 매우 긴 것이 특색이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가야의 이식은 백제, 고구려, 신라의 그것과 형태적으로 구별된다. 주환은 세환이고 중간식은 공구체가 가장 많으며 수하식으로는 심엽형 이외에도 원추형과 산치자형이 유행한다. 시기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백



〈그림 8〉 주변국 이식과 비교해본 가야의 이식

제 한성시기의 이식과 유사하고 장식성이 현저하지 않다. 대개 원추형 수하식이 등장하는 5세기 중엽 경부터 가야적인 양상이 뚜렷해진다. 가야 이식은 변화양상은 장식성의 점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7〉에 제시한 2점의 가야 이식은 가장 화려한 편에 속한다. 합천 옥전M4호 이식(〈그림 7〉 좌)의 경우 공구체에 여러 줄의 각목대와 감옥용 돌기가 장식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금립을 붙여 장식하였다. 진주 중안동 고분 출토 이식(〈그림 7〉 우)의 경우

24) 일본열도 출토 산치자형 수하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성과가 참고된다.

依田香桃美, “古墳時代の垂飾付耳飾の復元技術について—保古里車塚古墳出土品・金製垂飾付耳飾の場合”, 『古代文化研究』 9, 島根縣古代文化センター, 2001.

宇野慎敏, “山梔子形垂飾付耳飾とその背景”, 『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 2004.

25) 이한상, “이식으로 본 대가야와 왜의 교류”, 『석헌 정정원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부산고고학연구회, 2006.

주환은 사각봉을 비틀어 나선상으로 만든 것<sup>26)</sup>이며 중간식인 공구체 표면에는 금립과 더불어 영락이 부가되어 있다.

### 3. 대금구

대금구는 고령 지산동(主山) 39호분<sup>27)</sup>과 동 75호분,<sup>28)</sup> 함천 옥전M1호분<sup>29)</sup>과 동 M11호분, 의령 경산리2호분 출토품<sup>30)</sup>이 전부이다. 고령 출토품은 공주 송산리3호분(구2호분) 괴판과 마찬가지로 鬼面 또는 獸面이 표현된 것이며, 옥전M1호분 출토품은 쌍염문을 기본 도안으로 제작한 것인데 이러한 도안은 경주의 황남대총 남분<sup>31)</sup>이나 일본 중기고분의 新開1號墳, 七觀古墳 등에 유례가 있는 것이다.<sup>32)</sup> 옥전M11호분 출토품은 백제의 무령왕릉 출토 대금구<sup>33)</sup>와 유사하다. 이상 4점 가운데 지산동39·75호분과 옥전M11호분, 경산리2호분 출토품은 백제에, 옥전M1호분 출토품은 신라에 계보를 둔 것이다. 가야에서는 대금구의 제작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함안 도항리 <현>8호분에서는 신라의 전형적인 은제 삼염투조괴판이 출토된바 있는데 창녕을 거쳐 함안에 이입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34)</sup>

26) 이와 유사한 기법은 한성백제 무덤인 천안 용원리37호분, 공주 수촌리4호분, 서산 부장리6-6호분 이식에서도 확인된다.

이한상, “5~6세기 금속장신구의 연대론”, 『고고학탐구』 창간호, 고고학탐구회, 2006.

27) 有光教一·藤井和夫, “附篇 高靈主山第39號墳發掘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遺稿Ⅱ』,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연구소 센터 재단법인 東洋文庫, 2002.

28) 김경수, “고령 지산동 73·74·75호분 발굴조사”, 『제51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문』, 2008.

29) 조영제 외, 『함천옥전고분군Ⅲ』, 경상대학교박물관, 1992.

30) 조영제·류창환, 『의령 경산리고분군』, 경상대학교 박물관, 2004.

31) 문화재연구소, 『황남대총남분 발굴조사보고서(도면·도판)』,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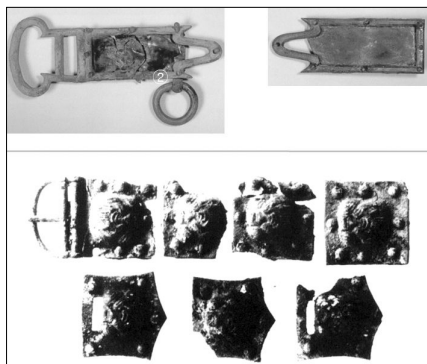
문화재연구소, 『황남대총남분 발굴조사보고서(본문)』, 1994.

32) 千賀久, “日本出土帶金具の系譜”, 『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 6, 1984.

33) 이한상, “무령왕릉 출토품 후보-대금구-”, 『고고학지』 5,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5.

34) 이주현, “아라기야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한국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야의 귀금속장신구는 주변국 장신구에 비하여 심플한 구조를 보인다. 즉, 신라의 장신구가 극히 화려함을 추구한 것이라면 가야의 장신구는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삼국시대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백제나 신라 등 주변국 장신구 완제품이나 변안품이 출토되는 사례가 많은 점 또한 특징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외에 신라나 백제에 비하여 금동식리의 출토 예가 매우 적어<sup>35)</sup> 장송의례용 장신구의 제작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가야의 대금귀 상 : 옥전M11 호분하 : 지산동39호분)

### Ⅲ. 장식대도의 특색과 변화양상

#### 1. 용봉문대도

環頭に 용이나 봉황문을 베푼 장식대도<sup>36)</sup>는 백제와 가야, 신라, 왜의 대

민족문화연구소 위, 2000, p.279.

35) 옥전M11호분에서 금동식리 편 1점이 출토되었을 뿐이다.

36) 조영제, “신라와 가야의 무기·무구”, 『한국고대사논총』 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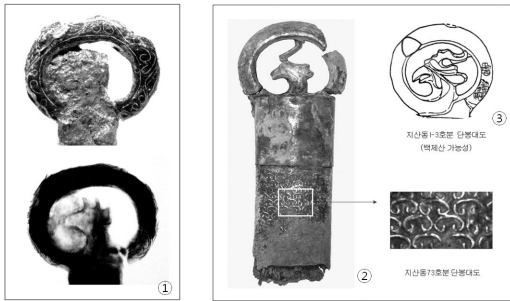
町田章, “가야의 환두대도와 왕권”, 『가야제국의 왕권』, 신서원, 1997.

穴澤啄光・馬目順一, “陝川玉田出土の環頭大刀群諸の問題”, 『古文化談叢』30(上), 九州古文化研究會, 1993.

이한상, “장식대도로 본 백제와 가야의 교류”, 『백제연구』 4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6.

大谷晃二, “龍鳳文環頭大刀研究の覚え書き”, 『財團法人大阪府文化財センター・日本民家

형분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된다. 가야의 왕릉급 고분에서도 용봉문대도가 여러 점 출토되었는데 제작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부분의 대도가 백제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견해<sup>37)</sup>와 일부 대도만 백제계이고 다수는 가야공방에서 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sup>38)</sup>로 나뉜다.



〈그림 10〉 지산동고분군 대도(① 32NE-1호분, ② 73호분, ③ I지구3호분)

현재까지 발굴된 대도 가운데 이른 시기에 속하는 자료는 고령 지산동 I지구 3호석곽묘(〈그림 10〉 ②)<sup>39)</sup>와 73호분 출토품(〈그림 10〉 ③)<sup>40)</sup>이다. 전자는 환두가 동체 주조품이고 못 2개로 철제 도신과 결합하였다. 봉황은 입을 조금 벌렸

고 뿔 상단은 돌출되어 환과 연결되어 있다. 환에 아무런 장식이 없고 환이 환내 도상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일체주조형이다.

지산동73호분은 무덤의 구조 및 중복관계로 보면 지산동32호분에 선행할 가능성이 높은 자료이므로<sup>41)</sup> 절대연대로 보아 5세기 전반까지 소급될 공산

集落博物館・大阪府立彌生文化博物館・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 2004年度共同研究成果報告書』, 2006.

이승신, “가야 환두대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7) 穴澤味光・馬目順一, 앞 논문, 1993.

38) 町田章, 앞 논문, 1997.

박천수, “5~6세기 대가야의 발전과 그 역사적 의의”, 『고령 지산동44호분-대가야왕릉-』, 경북대학교박물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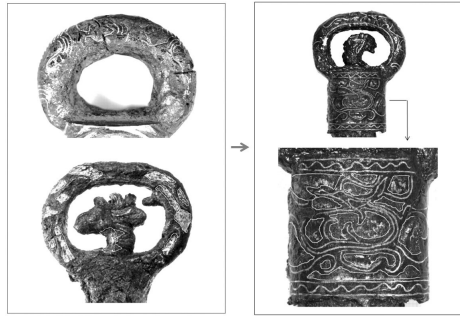
39) 영남문화재연구원, 『고령 지산동고분군 I』, 2004.

40) 대동문화재연구원, 『고령지산동 제73~75호분 발굴조사 제3차 지도위원회 보도자료』, 2008. 5.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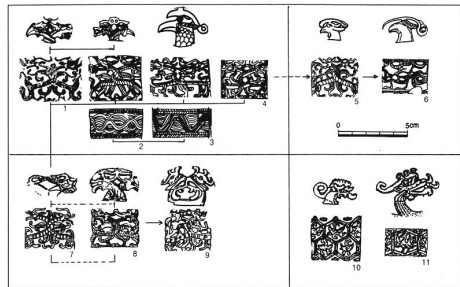
41) 조영현, “5세기대 대가야고분의 축조추이”, 『5세기대 일본열도의 고분문화』 (제)대동문화재연구원 제1회 초청강연회, 2008.

이 있다. 이 무덤에서 출토된 대도의 환두는 금동제이며 환에는 역시 아무런 장식이 없지만 내부에는 봉황이 표현되어 있다. 봉황은 입을 다문 형상이고 머리 위의 뿔은 한 가닥만 있어 지산동 I 지구 3호석곽묘 대도와 다르다. 비록 시기차는 존재하지만 산청 중촌리3호분 북 토광묘 출토 대도(42)와 유사하다. 병부에는 魚鱗文이 베껴어져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른 용봉문대도가 있는데 합천 옥전35호분(〈그림 11〉 우)43)과 고령 지산동 32NE-1호분 출토 대도(〈그림 10〉 ①)44)이다. 환내 도상은 철로 만들었지만 표면에 상감기법을 활용하여 세부문양을 표현하였다. 특히 옥전35호분 대도의 경우 환과 병두금구에 용문양을 주출한 후 은입사로 문양을 강조하고 1단 낮은 바탕에 금판을 붙여 장식한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그림 11〉 좌에 제시한 공주 수촌리1호분45)과 천안 용원리12



〈그림 11〉 수촌리 1호분(좌상), 용원리 1호석곽 작하, 옥전35호분(우) 대도



〈그림 12〉 가야 환두대도의 도상과 비교자료 1-4. 옥전M3호분, 5. 옥전M4 호분 6. 옥전M6 호분 7. 식리총, 8. 교동 10호분, 9. 鴨稻荷山古墳, 10. 지산동39호분, 11. 무령왕릉)

42) 안춘배, “산청 중촌리고분 발굴개보”, 『한국고고학연보』 10, 서울대학교박물관, 1983.  
 43) 조영제 외, 『합천옥전고분군V』, 경상대학교박물관, 1995.  
 44) 김종철, 『고령 지산동고분군』, 계명대학교박물관, 1981.  
 45) 정광용·이현상, “백제시대 수촌리유적 출토 환두대도의 복원제작”, 『보존과학연구』 27,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호석곽 대도<sup>46)</sup>에도 구사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기법이나 도안을 통해 보면 가야 장식대도의 기원은 백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옥전M3호분을 지표로 하는 5세기 후반이 되면 대가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용봉문대도의 수량이 늘어나고 그 소유가 합천, 함양까지 확산된다. 이 시기에는 용봉문대도에 더하여 반계제 가-A호분에서 출토된 은장대도<sup>47)</sup>도 주요한 장식대도로 기능한다. 다음 시기인 6세기초(1/4분기)의 무덤인 고령 지산동39호분과 옥전75호묘, 산청 중촌리3호묘, 남원 월산리<sup>48)</sup>와 두락리고분군<sup>49)</sup>에서 장식대도가 출토되었다.

가야의 대도는 백제 대도와 유사하다. 백제대도의 환두는 청동에 아말감 도금한 것이 많지만 가야의 대도는 鐵地金板(薄)被가 많아 차이를 보인다. 파부장식은 그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함양 백천리1-3호묘 대도<sup>50)</sup>의 경우 파부의 인상문장식과 판고정기법은 신라의 그것과 다르며 옥전75호묘 대도와 함께 백제대도와 연결지을 수 있다. 신라대도의 인상문은 횡장의 반원형문이 상하 엇갈리면서 마주보게 도안되어 있음에 비하여 백제의 대도에는 종장의 반원형문이 한 방향으로 시문되어 있다. 신라의 대도는 인상문이 베풀어진 판을 고정하기 위하여 격쇠상의 못을 사용함에 비하여 대가야고분이나 나주 신촌리9호분<sup>51)</sup> 대도에서는 직선적인 못이 사용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백천리 대도보다 오래된 대도에서도 백제적인 기법이 확인되고 있다. 바로 함안 마갑총의 象嵌大刀이다. 이 대도의 경우 파부를 감싼 판에 인상문이 베풀어져 있는데, 인상문의 형식은 신라나 백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46) 이남석, 『용원리고분군』, 공주대학교박물관 외, 2000.

47) 김정완 외, 『합천 반계제고분군』, 국립진주박물관, 1987.

48) 전영래, 『남원 월산리고분 발굴조사보고』,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3.

49) 윤덕향·곽장근, 『두락리』, 전북대학교박물관, 1989.

50) 부산대학교박물관, 『함양 백천리 1호분』, 1986.

51)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백제(도록)』, 1999, p.80의 도138.

옥전M3호분 출토 용봉문대도 4점은 柄頭金具나 鞆口金具의 도상과 기법이 매우 유사하다(〈그림 12~14〉) 동일인 혹은 동일 공방 제작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M3호분의 단봉대도의 경우 다른 예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의장을 보이고 있어 대가야권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상정된다. 그런데 이 대도의 파상문이 베껴어진 鞆金具(〈그림 14〉)는 같은 무덤의 용두봉수 장식 대도의 초금구와 유사하다. 이 점으로 본다면 양자 모두 특정 공방에서 제작되었을 것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백제 대도와는 제작기법과 의장이 많이 다르다. 따라서 대가야권, 좀 더 범위를 좁힌다면 고려이나 합천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두봉수가 목을 교차하는 도상은 옥전M3호분 대도를 중심으로 하는 5세기 후반의 늦은 단계에만 한정되며, 6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 鴨稻荷山古墳 출토품<sup>52)</sup>에서 보듯이 쌍봉 또는 쌍룡이 서로 입을 맞추는 형상(〈그림 11〉-9)으로 변하거나, 단룡·단봉이 주로 제작된다.

이보다 조금 늦은 시기의 자료인 지산동39호분 대도(〈그림 15〉)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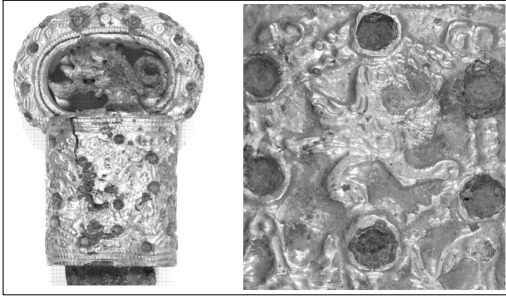


〈그림 13〉 옥전M3호분 대도의 환두 용문 금판패



〈그림 14〉 옥전M3호분 대도의 파상문

52) 森下章司・高橋克壽・吉井秀夫, “鴨稻荷山古墳出土遺物の調査”, 『琵琶湖周邊の6世紀を探る』,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1995.



〈그림 15〉 지산동39호분 대도 환두 세부(봉황문)

무령왕릉 대도<sup>53)</sup>와 유사도가 높다. 다만 지산동 대도는 보다 간략하고 가야적인 특색을 갖추고 있다. 세부적인 기법에서는 옥전M3호분 대도 등 5세기 후반 대도의 기술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창녕

교동10호분 출토품<sup>54)</sup>은 옥전 M3호분 출토품이나 경주 식리총 출토품<sup>55)</sup>에 비견되는 것인데, 제작기법이 매우 정제되어 있다.

이처럼 가야의 용봉문대도는 그 계보가 백제 대도에 연결되지만 백제 대도와는 일정한 차이를 보여준다. 옥전M3호분이나 지산동39호분 대도의 사례에서 보듯 환 내 도상을 별도로 제작하여 끼워 넣었다는 점에서 1차적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더하여 환을 제작함에 있어 가야적인 특색이 현저하다. 용원리 1호석곽묘나 무령왕릉 환두대도의 경우 환뿐만 아니라 환내 도상까지 일체로 주조하였고 철제품인 용원리 12호석곽묘 출토품 역시 그러하다. 이에 비해 가야의 용봉문대도 가운데 다수는 환이 중공이다. 문양이 새겨지는 고리 표면은 단면 U자상으로 만들었고<sup>56)</sup> 환 내측에는 좁고 긴 판을 고리 모양에 맞게 재단하여 끼워 넣었다. 이러한 제작기법은 보다 늦은 시기의 대도로 추정되는 경주 호우총 출토 단룡대도<sup>57)</sup>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53) 이한상, “무령왕의 환두대도”, 『무령왕릉 분석보고서 II』, 국립공주박물관, 2007.

54) 穴澤啄光・馬日順一, 「昌寧校洞古墳群-梅原考古資料を中心とした谷井濟一氏發掘資料の研究」, 『考古學雜誌』60-4, 日本考古學會, 1975.

55) 梅原末治,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查報告”,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查報告』, 朝鮮總督府, 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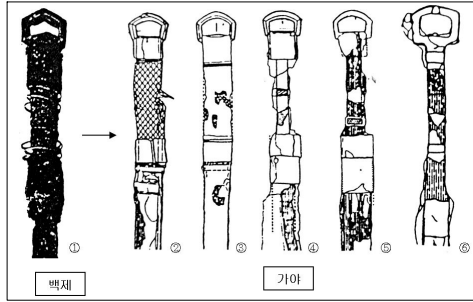
56) 이러한 기법을 고안한 것은 표면문양을 정교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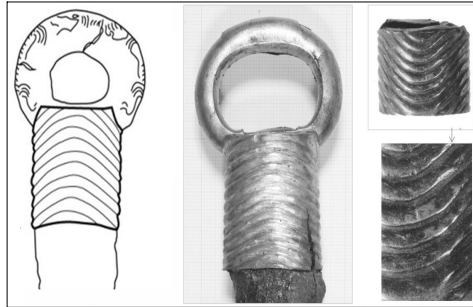
## 2. 은장대도

함양 백천리 1호분 3곽, 함천 반계제 가-A호분, 옥전 71호분, 58) 옥전 M3호분, 남원 두락리 4호분 등 대가야의 수장묘에서 유사도가 높은 上圓下方形 환두의 은장대도(〈그림 16〉)가 출토되었고 이를 대가야적인 대도로 인식한 연구가 있다. 59) 그런데 이 대도와 유사한 예가 논산 표정리에서 발견된 바 있어 60) 양 대도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야의 환두는 표정리 대도처럼 오각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완제품의 이입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는 조금 다른 형식의 은장대도가 있다. 즉, 논산 모촌리 93-5호분 61)과 수촌리 1호분에



〈그림 16〉 가야의 은장대도와 그 계보 ① 표정리, ② 백천리1호3곽, ③ 반계제 가A 호묘 ④ 옥전1 호묘 ⑤ 옥전M3호분, ⑥ 두락리4호묘



〈그림 17〉 옥전 28호분의 은장대도 중 좌 와 비교자료 (좌 : 수촌리1호분, 우 : 江田船山古墳)

57)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한국의 칼』, 2007.

이외에 상세한 정보는 함순섭 測 '호우총 환두대도 실측도(미공간)' 참조

58) 조영제, 『함천 옥전고분군 I - 목곽묘 -』 경상대학교박물관, 1988.

59) 김길식, "5~6세기 신라의 무기 변화양상과 그 의의", 『국립박물관 동원학술논문집』1,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9.

60)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백제』, 1999. p.115의 사진210 좌.

61) 안승주 외, 『논산 모촌리백제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Ⅱ)』, 공주대학교 박물관 외, 1994.

서 출토된 대도(〈그림 17〉)는 병두금구로 이면 打出의 파상문이 베풀어진 은판을 장식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작의장을 보이는 대도가 옥전28호분<sup>62)</sup>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보다 뒤 시기의 고분인 일본 熊本縣 江田船山古墳 출토품<sup>63)</sup>에서도 확인된다. 옥전28호분 대도는 환이 鐵地銀板被이고 병두금구의 은판에는 파상문이 티출되었는데 공반유물로 보면 5세기 4/4분기 정도로 편년할 수 있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가야의 금속공예품이 어떤 특색을 지녔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태 및 제작기법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금속공예품을 소재로 가야라는 정치체의 공간적 범위를 찾아낼 수 있는 시기는 서기 5세기 무렵이다. 이 시기가 되면 고구려, 백제, 신라와 구별되는 가야적인 금속공예품이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가야적인 특색은 관, 귀걸이 등의 장신구와 환두대도에 잘 드러나 있다. 고령 지산동 32호분 금동관은 풀 혹은 꽃모양의 장식을 갖추고 있어 주변국의 관과는 차이가 있고, 지산동과 합천 옥전고분군에서 많이 출토된 금 귀걸이는 속이 비어 있는 둥근 구슬과 나무열매모양의 장식을 주요 모티브로 삼고 있어 특색이 있다. 환두대도의 둥근 고리 속을 파이프처럼 비게 만들고 용이나 봉황장식을 별도로 만들어 결합하였다는 점도 가야적인 특색이다.

가야적인 금속공예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백제로부터의 영향이 절대적이

62) 조영제 외, 『합천옥전고분군Ⅵ』, 경상대학교박물관, 1997.

63) 本村豪章, “古墳時代の基礎研究稿—資料篇(II)—”, 『東京國立博物館紀要』 26, 1991.

었다. 백제는 가야의 오랜 우방이었으며 새로운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해주는 원천이었다. 가야 사회에서 금속공예품문화가 개시되는 5세기 전반의 장신구와 환두대도 가운데는 백제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계를 지나 서기 5세기 후반이 되면 가야적인 특색을 보다 현저하게 갖춘 금속공예품이 등장한다. 제작기법이 정교해지고 보다 화려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인데 그러한 변화의 배경은 가야의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가야의 맹주였던 고령의 대가야 왕이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낸 479년 무렵, 대가야의 왕은 연맹에 속해 있던 지배층들을 결속하고 또 그들을 매개로 가야 사회를 지배하기 위하여 가야적인 금속공예품을 본격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 【 참고 문헌 】

- 경남고고학연구소 외, 『도항리·말산리유적』, 2000.
- 고령군, 『대가야고분 발굴조사보고서』, 1979.
- 高田貫太, 『일본열도 5, 6세기 한반도계 유물로 본 한일교섭』,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谷畑美帆, “日本及び朝鮮半島出土の垂飾付耳飾について”, 『考古學研究』 40, 考古學硏究會, 1993.
- 국립공주박물관·충청남도역사문화원, 『4~5세기 백제유물 특별전, 한성에서 웅진으로』, 2006.
-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한국의 칼』, 2007.
- 국립문화재연구소,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재』, 2006.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백제(도록)』, 1999.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함안 도항리고분군Ⅱ』, 1999.
- 김경수, “고령 지산동 73·74·75호분 발굴조사”, 『제51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문』, 2008.
- 김길식, “5~6세기 신라의 무기 변화양상과 그 의의”, 『국립박물관 동원학술논문집』1,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9.
- 김정완 외, 『합천 반계제고분군』, 국립진주박물관, 1987.
- 김종철,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계명대학교 박물관, 1981.
- 大谷晃二, “龍鳳文環頭大刀研究の覚え書き”, 『財團法人大阪府文化財センター・日本民家集落博物館・大阪府立彌生文化博物館・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 2004年度共同研究成果報告書』, 2006.
- 대동문화재연구원, 『고령지산동 제73~75호분 발굴조사 제3차 지도위원회 보도자료』, 2008. 5. 22.
- 梅原末治,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31.
- 문화재연구소, 『황남대총남분 발굴조사보고서(도면·도판)』, 1993.
- 문화재연구소, 『황남대총남분 발굴조사보고서(본문)』, 1994.
- 박보현, “가야관의 속성과 양식”, 『고대연구』 5, 고대연구회, 1997.

- 本村豪章, “古墳時代の基礎研究稿－資料篇(Ⅱ)－”, 『東京國立博物館紀要』 26, 1991.
- 三木ますみ, “朝鮮半島出土の垂飾付耳飾”, 『筑波大學先史學・考古學研究』 7, 1996.
- 森下章司・高橋克壽・吉井秀夫, “鴨稻荷山古墳出土遺物の調査”, 『琵琶湖周邊の6世紀を  
探る』,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1995.
- 안준배, “산청 중촌리고분 발굴개보”, 『한국고고학연보』 10, 서울대학교박물관, 1983.
-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외, 『고령 지산동30호분』, 1998.
- 영남문화재연구원, 『고령 지산동고분군 I』, 2004.
- 宇野慎敏, “山梔子形垂飾付耳飾とその背景”, 『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  
記念－』, 2004.
- 有光教一・藤井和夫, “附篇 高靈主山第39號墳發掘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遺稿Ⅱ』,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연구원 재단법인 東洋文庫, 2002.
- 依田香桃美, “古墳時代の垂飾付耳飾の復元技術について－保古里車塚古墳出土品・金製  
垂飾付耳飾の場合”, 『古代文化研究』 9, 島根縣古代文化センター, 2001.
- 이경자, “대가야계고분 출토 이식의 부장양상에 대한 일고찰”, 『영남고고학』 24, 영남  
고고학회, 1999.
- 이남석, 『천안 용원리고분군』, 공주대학교 박물관, 2000.
- 이승신, “가야 환두대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은영, “가야시대 이식 연구－합천 옥전고분 출토 이식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8.
- 이주현, “아라가야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한국  
민족문화연구소 외, 2000.
- 이한상, “대가야권 장신구의 편년과 분포”, 『한국고대사연구』 18, 한국고대사연구회,  
2000.
- 이한상, “무령왕릉 출토품 후보－대금구－”, 『고고학지』 5,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5.
- 이한상, “무령왕의 환두대도”, 『무령왕릉 분석보고서 Ⅱ』, 국립공주박물관, 2007.
- 이한상, “이식으로 본 대가야와 왜의 교류”, 『석헌 정정원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부  
산고고학연구회, 2006.
- 이한상, “장식대도로 본 백제와 가야의 교류”, 『백제연구』 4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6.
- 이한상,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경문화사, 2009.

- 町田章, “가야의 환두대도와 왕권”, 『가야제국의 왕권』, 신서원, 1997.
- 조영제·류창환, 『의령 경산리고분군』, 경상대학교 박물관, 2004.
- 조영제 외, 『합천 옥전고분군Ⅱ』, 경상대학교박물관, 1990.
- 조영제 외, 『합천 옥전고분군Ⅲ』, 경상대학교박물관, 1992.
- 조영제 외, 『합천 옥전고분군Ⅳ』, 경상대학교박물관, 1993.
- 조영제 외, 『합천 옥전고분군Ⅴ』, 경상대학교박물관, 1995.
- 조영제 외, 『합천 옥전고분군Ⅵ』, 경상대학교박물관, 1997.
- 조영제 외, 『합천 옥전고분군Ⅶ』, 경상대학교박물관, 1998.
- 조영제, “신라와 가야의 무기·무구”, 『한국고대사논총』 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 조영현, “5세기대 대가야고분의 축조추이”, 『5세기대 일본열도의 고분문화』, (제)대동문화재단연구원 제1회 초청강연회, 2008.
- 早乙女雅博, “新羅·伽耶の冠”, 『MUSEUM』 372, 東京國立博物館, 1982.
- 창원문화재단연구소, 『함안 암각화고분』, 1996.
- 千賀久, “日本出土帶金具の系譜”, 『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 6, 1984.
- 함순섭, “신라와 가야의 관에 대한 서설”, 『대가야와 주변제국』, 한국상고사학회 외, 2002.
- 함순섭, 1997, 「小倉Collection 금제대관의 제작기법과 그 계통」, 『고대연구』 5, 고대연구회.
- 穴澤啄光・馬目順一, “陝川玉田出土の環頭大刀群諸の問題”, 『古文化談叢』 30(上), 九州古文化研究會, 1993.

## Abstract

## Special Characteristics and Change Aspect of Gaya Metal Craftworks

Lee, Han-Sang

This writing first explored special characteristics of Gaya's metal craftworks and then analyzed how aspects of forms and production method changed according to time.

With the theme as metal craftwork, the period, where we can find spatial range of the government body called Gaya, is the A.D. fifth century. During this period, Gaya's metal craftwork that can be differentiated from Goguryeo, Baekje and Shilla were produced. Special characteristics of Gaya can be easily found in accessories like crowns and earrings, as well as in sword with a ring pommel. Gold-copper crown from no.32 of Goryeong Jisan-dong has ornaments in shapes of plants or flowers, which is different from crowns from neighboring countries, while gold earrings that are mainly found in Jisan-dong and old tombs of Hapcheon, Okjeon have hollow round beads and tree fruit shaped ornaments as their main motives, which is very unique. For sword with a ring pommel, special features can be found in round rings at the end of the handle is hollow like a pipe, and from dragon or phoenix ornaments, as it was made separately first and then welded together later.

Until Gaya people could make such a special metal craftworks, Baekje influenced significantly. Baekje was an allied country to them, and a source that constantly introduced new cultures. We can say this as accessories and sword with a ring pommel in the early fifth century, which was the time that culture of metal craftworks started in Gaya society, we can see lots of similar accessories like Baeje. After this period, about at the end of the fifth century, metal craftworks that have Gaya's special characteristics start to be born. Their aspect changed to become more magnificent and production techniques became

elaborate - this change was started from development of Gaya. Especially, when the leader of Gaya, the King of Goryeong's Great Gaya sent an envoy to the Southern Qi(南齊) in China around year 479, the King of Great Gaya united rulers in the federation and started to produce and use Gaya's specialized metal craftworks to rule society of Gaya.

Key Word

Gaya(加耶), metal craftworks, accessories, earrings, sword with a ring pommel

- 논문투고일 : 2009.12.9. 심사시작일 : 2009.12.10. 심사완료일 : 2009.12.18.